

The Economy

LS Edge

Investment Strategy | 투자코멘트 | 2026. 8. 14

7월 미국 PPI 예상치 하회, PCE 연계 서비스 일부 반등

해외채권/크레딧 | 박지빈 | jibin@ls-sec.co.kr

상품가격 하락에 헤드라인 PPI 예상치 하회

7월 미국 PPI는 전월대비 포함(0.0%MoM)을 기록하며 예상치(0.2%)를 하회했고, YoY 상승률은 5.5%→4.7%로 둔화되었다. 음식·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0.2%MoM, 4.2%YoY 상승하며 전월(0.4%MoM, 4.7%YoY)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. 에너지(-3.1%)와 식품(-0.9%) 가격 하락으로 상품 가격이 -0.7%MoM 하락하며 헤드라인 상승을 제약했다. 반면 서비스 가격은 0.2%MoM 상승했고, 무역·운송·창고를 제외한 서비스는 0.6% 상승했다. 음식·에너지·무역서비스를 제외한 PPI 역시 0.1%→0.4%MoM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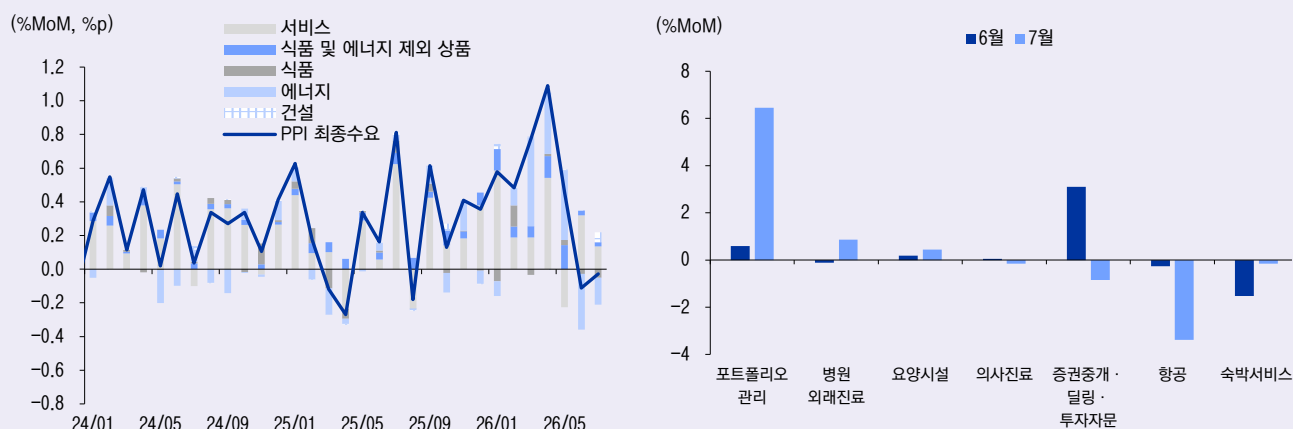
PCE 산출에 활용되는 서비스 가격은 혼조

PCE 가격지수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중 포트폴리오 관리는 6월 0.6%→7월 6.5%로 급등하며 서비스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, 병원 외래진료(-0.1%→0.9%), 요양시설(0.2%→0.4%)도 상승폭을 확대했다. 반면 같은 금융서비스 내에서도 증권중개·딜링·투자자문은 3.1%→-0.8%로 하락 전환했고, 의사진료(-0.1%), 항공운임(-3.4%) 등은 하락했다. 포트폴리오 관리와 일부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폭 확대는 7월 근원 PCE에 단기적인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 다만 포트폴리오 관리는 금융시장 여건에 민감하고 변동성이 큰 데다, 다른 PCE 연계 항목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서비스 물가 압력의 확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.

재차 강화된 연준의 9월 동결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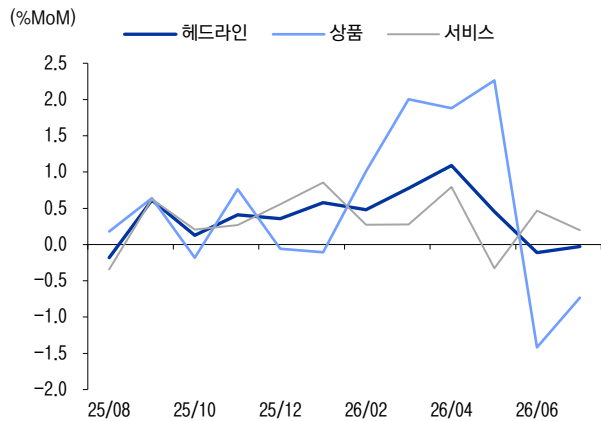
7월 고용 부진에 이어 예상과 부합한 CPI와 예상을 하회하는 PPI가 발표되면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베팅은 약화되었다. CME FedWatch 기준 9월 동결 확률은 59%→66%로 상승했다. 다만 PCE 산출에 활용되는 일부 서비스 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된 만큼 향후 7월 PCE와 8월 물가지표를 통해 기초적인 서비스 물가 흐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.

그림1 PPI 및 기여도, PCE 산출 활용 수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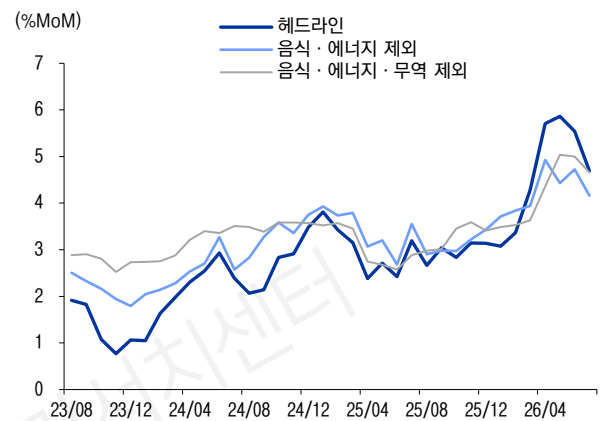
자료: BLS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항목별 물가상승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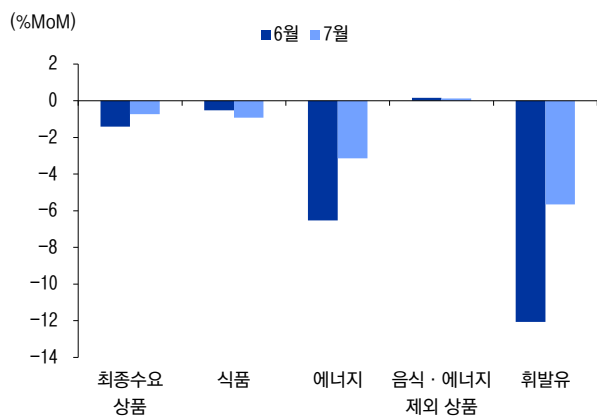
자료: BLS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헤드라인·근원 물가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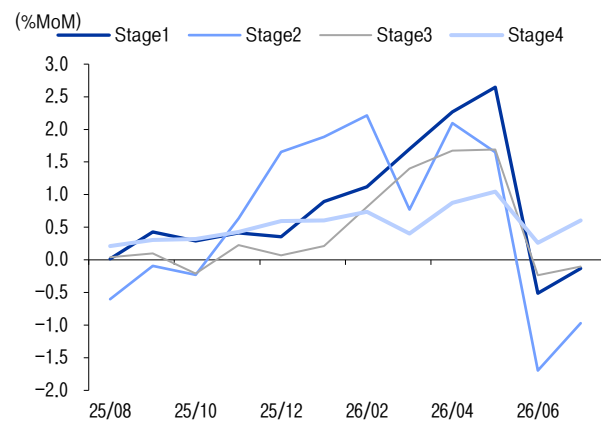
자료: BLS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상품가격 하락은 에너지·식품에 집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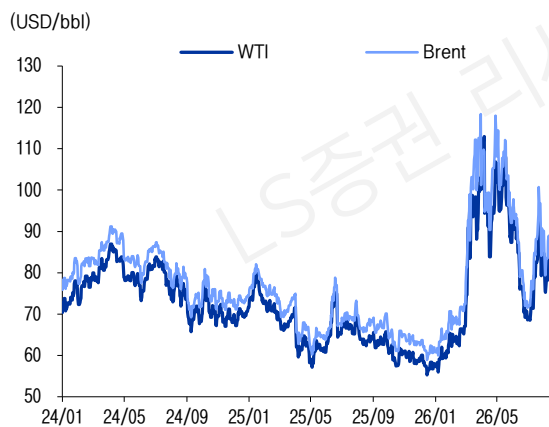
자료: BLS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생산 단계별 상승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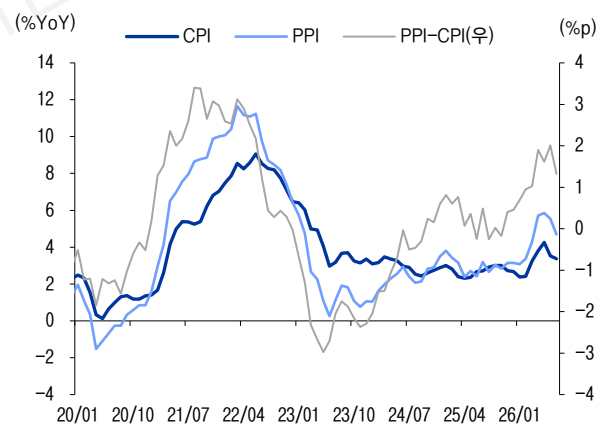
자료: BLS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국제유가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7 CPI와 PPI 추이



자료: BLS, LS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박지빈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